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9월

##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과 ESG

## 주요 이슈

TCFD 와 기업의 이행 현안

##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주요 통계



# 탄소중립과 ESG



중앙대 경제학부  
김정인 명예교수

전 세계가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인명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예로 7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이시간에도 한반도 크기의 산림이 불타고 있다. 또한 온도가 40도 심지어 50도가 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진짜 불타는 지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결과이며 그 핵심은 탄소에 있다. 그래서 미래는 저탄소 사회, 탄소중립, 탄소경제 등 '탄소'라는 키워드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미래는 탄소시대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우선 세계 각국은 2022년에 2030년까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50년에는 아예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했다. 유럽이 15년 전에 시작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이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가인 중국에서 2022년에 발전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몇년 뒤에는 정유, 철강, 시멘트, 등으로 확대된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유럽발 탄소국경 조정제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탄소감축 인지에산제도 또는 녹색(탄소) 예산이라는 것인데 예산 편성 시에 무조건 탄소 감축을 하는 예산을 기획 편성하고,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외에 RE100, CFE(무탄소 에너지), 탄소세, 탄소마크, 국제 메탄협약, 최근에는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도 있다.

이런 와중에 ESG가 또 다른 화두로 등장했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갈 것이 확실하다. 기존에 강조한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보다는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 시민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는 CSR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나 윤리 경영, 투명경영 등은 SG와 연관된 것 들이었다. 그러나 환경(E)에 관련해서는 의식이 낮았고, 책임감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자연과 공존함이 없이 인간 위주의 생활을 몇십년 하다보니 더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E)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변화와 탄소저감, 쾌적한 삶의 질과 연결된 환경오염, 인간과 공생하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ESG 경영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이면서,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금융회사들로부터 압박을 항상 받는 기업들은 재무적 요소는 물론, 비재무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가치 평가를 좌우하는 것이 재무적 지표였지만 이제는 비재무적 지표가 실질적 가치평가에서 갖는 중요도가 커진 것을 깨달아야 한다.

ESG 공시 국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는 기후공시만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SB는 'S1'으로 불리는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과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공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첫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미 ESG를 경영의 주요 전략으로 이용하는 회사는 많은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송사인 덴마크의 머스크(Maersk)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 루트 개발과 컨테이너 적재,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 이동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컨테이너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정보 제공 등에서 회사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구축했다. 즉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자원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일석이조의 '전략적 ESG'를 실현했다. 이외에 Scope 3의 온실가스 정보를 손쉽게 취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객사 이동 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서비스 차별화도 달성했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은 탄소 중립, 거래제, 공시제도, 국경세 등의 이슈에 대해서 탄소 경영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 저감 기술에 최대한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하여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과거의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술 협력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 투자에 과감한 법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핵심 탄소 기술을 선정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녹색 금융(기후금융) 기반한 투자를 하되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득을 보고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행동하는 현재에 달려 있다.

# TCFD와 기업의 이행 현안



지속가능경영원

## 1. TCFD 설립 배경

1900년대 초 인류가 과학적인 기상관측을 개시한 이래로, 지구의 기온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측정한 200여년의 기간 대비 상승한 온도 값은 미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지구의 환경적 변화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뭄,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고, 이상기온, 해수면 상승 등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가 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점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 부문은 기후변화가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련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공개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공개 자료의 작성에 있어 공개 표준이 될 만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는 프레임워크 및 권고안을 연구 및 개발하는 조직인 TCFD의 설립을 유도하게 된다.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자발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개를 위해 세계 최대 중앙은행, 자산 운용사, 연기금 등과 함께 주도하여 2015년 12월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TCFD는 기후 변화가 경제적 의사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에서 시작되었다.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및 공개하여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금융 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이해 및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TCFD의 설립 주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1999년 독일연방은행 총재의 제의로 금융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 연구, 국제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대한 국

제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이 G7 국가, 호주 등 12개 회원국 및 IMF, BCBS 등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었던 당초에 비해, 2009년 G20 정상회의 이후 12개국 및 유럽위원회 등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명칭을 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 2. TCFD 주요 내용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를 각 부문 및 지역의 조직이 채택 가능한 재무정보 공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TCFD는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를 대변하는 4대 영역인 (1) 지배구조 (2) 경영전략 (3) 위험관리 (4) 지표·목표 설정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다. TCFD의 권고안은, 금융 부문(예컨대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자산 소유자) 및 비 금융 부문(예컨대 에너지 원자재, 건축, 교통, 농산물·식품·임산물)에 대한 추가 지침 또한 제공한다.

###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의 핵심 요소



## (1) 지배구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기후변화 이슈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TCFD는 조직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 (2) 전략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식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사업, 경영전략 및 재무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TCFD는 이러한 경영전략 평가가 어떻게 기존의 사업 전략에 반영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 (3) 위험관리

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조직이 전반적 위험 관리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확인, 평가, 관리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TCFD는 조직이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 (4) 지표와 감축목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이 마련한 지표·목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잠재적 위험이 반영된 수익 현황, 부채 상환 능력,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노출 정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관리 및 적응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TCFD는 조직이 관련 지표·목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 3. Platform 관점에서 TCFD의 위상

IFRS 재단은 2021년 11월, COP26에서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제 표준(Global Baseline)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발표하였다.

EU의 경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 딜이 2019년 12월 마련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ESG)에 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해졌다는 판단으로 2021년 4월 NFRD 대신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를 입안하게 된다. NFRD 보고 기업이 1만2000개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기업인 약 5만개의 기업이 CSRD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CSRD 기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이 작업한 기준이 바로 ERSRD.

미국 SEC는 2022년 3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의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마련하였다. 실제로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같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필수적인 정보를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방안이다.

이렇듯 주요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기준 제정기구들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 단일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3가지 주요 공시 기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TCFD 이다.

## Comparison of Three Major Proposed Sustainability/Climate Reporting Standards

Differences in the Proposal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Potential adoption	November 2022	December 2022	Late 2022
Coverage	Companies located or listed in an EU member state (around 50,000)	All publicly-traded companies listed in the U.S. (around 4,000)	Not yet adopted by regulators; voluntary at this point
Materiality	Double: matters material to the company and impacts of the company on society	Single: sustainability matters that may financially impact the company	Single: sustainability matters that may financially impact the company
Topics	ESG and cross-cutting topics	Climate-related topics	General sustainability and climate-related topics
Alignment to reporting framework	<b>TCFD</b> , EU taxonomy, SASB (allowed for first two years for entity-specific dimensions)	<b>TCFD</b> , Greenhouse Gas Protocol,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b>TCFD</b> , SASB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이 TCFD를 주요 Framework 으로 채택한 것은 TCFD의 태생적 Governance 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에 ‘금융 부문’에 향후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요청하면서 설립되었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G20 국가의 Key-man 들의 자발적 의자로 만들어진 만큼 그 영향력과 지배력은 강력할 수 밖에 없다.

## 4. TCFD 이행 현안

TCFD권고안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통해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금융기관을 은행, 보험회사, 자산 소유자, 자산운용사로 구분하여 각 금융 기관이 노출된 기후 리스크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및 목표 등을 공시 하도록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변화와 정책, 기술, 소비자 인식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 등의 정보공개에 나서는 기관이 최근 몇 년간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TCFD가 권장하는 11개 정보공개 항목 중 최소 4개 이상을 채운 기관은 전체의 51%에 불과하고, 11개 항목 모두 공개한 회사는 전체의 4%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공개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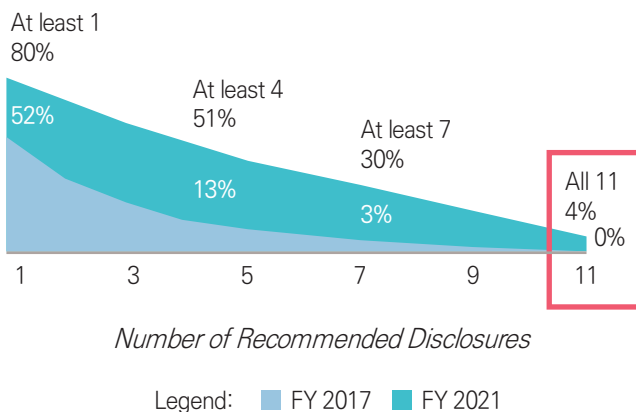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나 기회에 관한 항목 공시가 다른 항목 보다 많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대응 전략에 대한 공시가 가장 적었다.

TCFD 정보 공개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특히 시나리오 별 대응 전략에 대한 공시가 가장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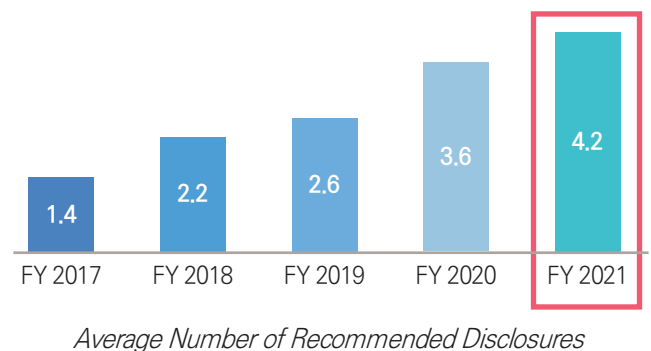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 위험(transition risk)과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이 존재한다. 이를 각 산업에 따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도 분석해야 한다. 전환 위험으로는 정책·법률·기술·시장·평판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물리적 위험은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 위험은 사이클론, 허리케인, 홍수와 같은 기상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이다. 만성 위험은 해수면 상승이나 지속적 고온 현상과 같은 장기적인 변화에 의한 위험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 시나리오 및 리스크 분석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당국의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Percent of Companies Disclosing



Average Number of Disclosures Per Company





## 5. 맺음말

주지하다시피 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이상고온과 같은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요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도 이에 맞춰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 요구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 및 기업가치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NGO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점차 줄여 가자는 국제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를 역행하는 기업은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런 배경 속에 TCFD가 조직되고 주요 공시 기준이 TCFD를 Framework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 그럼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관련 경험이 많은 TCFD 글로벌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참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 각 기업의 국가(지역), 업종, 특성에 알맞게 권고안을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를 설정하고, 특정의 개별 부서가 아닌 전사적 관점에서 이사회 및 경영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번째로 실무 부서별 업무분장(Roles and Responsibility) 및 사내 대응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성과와 적절한 보상체계 연계로 지속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네번째, 외부환경 및 이해관계자 요구 변화 등 유연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교육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전문가의 TCFD의 권고안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 실행하되, 관련 활동 결과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주 등 핵심이해관계자 소통(지속가능보고서 및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을 적극 공개)에 활용한다면, 기업가치 관리에 도움이 됨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국내기업에 대한 ESG경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1일에 개원한 가운데 ‘ESG경영촉진법’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ESG 공시제도 로드맵과 미국의 기후공시 기준이 올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내기업들의 ESG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 해외 ESG 뉴스

**투자자들 ESG 회의론 늘었다,  
블룸버그 “미국에서 정치적 무기 된 탯”**

[https://www.businesspost.co.kr/](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449)

BP?command=article\_view&num=323449

비즈니스포스트 | 2023.08.04.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업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임박**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2)

html?idxno=4632

ESG경제 | 2022.09.18.

**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탄소세’ 시행 첫발**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16540009](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165400098?input=1195m)

8?input=1195m

연합뉴스 | 2023.08.17.

**“기업 부담 지나쳐”...  
美·日 ‘ESG 공시 의무화’ 신중**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13626>

매일경제 | 2023.08.21.

**“1000톤의 법칙...  
지구온도 2℃ 상승시 10억명 조기사망”**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8300009>

뉴스트리 | 2023.08.30.

### 국내 ESG 뉴스

**정부, CF100 국제표준화 본격 시동...  
11월 전략 나온다**

[https://news.mt.co.kr/mtview.](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713492139656)

php?no=2023081713492139656

ESG경제 | 2023.08.17.

**7월→9월→12월로...  
‘ESG 의무공시’ 로드맵 왜 늦어지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35709616&mediaCodeNo=257&OutLnkChk=Y)

46635709616&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2023.08.21.

**국내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나홀로 급락’...  
“다음 해로 이월 쉽게 해야”**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0)

html?idxno=4600

ESG경제 | 2023.09.13.

**기업 ESG 경영 촉진 제정법 발의됐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769)

html?idxno=139769

에너지데일리 | 2023.09.01.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  
제정법 국내 첫 발의**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0515>

이투데이 | 2023.09.01.



# ESG 통계 지표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213	215	221	227	231	249	247	249
사회적채권	1,083	1,103	1,138	1,164	1,201	1,246	1,281	1,314
지속가능채권	298	300	299	297	290	297	292	287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녹색채권	201	205	210	215	217	243	241	241
사회적채권	1,565	1,576	1,638	1,666	1,713	1,768	1,803	1,849
지속가능채권	213	213	212	211	214	217	216	209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23.8)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47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23.8)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3.8) \* CF100 참여 기업(기관) 수: 128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	-	-	6	14	27	34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18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7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2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8월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3월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9월   TCFD 개요 및 적용 현황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10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현황
5월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월   ESG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6월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12월   생물다양성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